

## News

### '15억원 주담대' 족쇄 풀린다는데...가계대출 불씨 되살아날까

뉴스1

정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하는 방안 고려 중... 그간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했으나 최근 주택 거래절벽, 가계대출 감소세 심화로 규제 완화 검토 돌입  
업계에서는 수도권 상급지 급매물 위주로 갈아타기 수요 발생하며 주택 거래 일부 재개될 것으로 예상...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된 상태라 변수로 작용 가능

### 210조 코로나 대출, 또 연장되나... 김주현 "자영업자 대출 연장 가능성"

머니S

금융당국, 코로나 19 사태에 피해 본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제도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 검토... 작년 4월 조치는 이달 말 최종 종료 예정  
7월까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연장 가능성 존재하고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출발기금은 다음달 4일 잠정 출시 예정

###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재논의...기대 없다는 핀테크?

아시아경제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논의 재점화...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피력  
핀테크 업계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 은행권 반발이 거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 또한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들로 차주 쏠릴 상황 우려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로 제2전성기 맞을까

아시아경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을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 내에는 선보이기 위한 준비 작업 한창 중... 플랫폼 전략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선보일 예정  
비대면 상품과 함께 2대 주주로 있는 한국평가정보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 도입한다는 계획... 개인사업자 대상 수신 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

###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보험 사상 최대 실적 '보험료 인하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77.1%로 전년동기대비 2.3%p 하락했다고 발표... 차 운행량 증가로 사고율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고율은 감소  
반면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증가해 보험료수입은 3,612억원 증가... 손해액은 대보험 가입에 따라 400억원에 불과... 총 피해액의 28.2% 수준... 보험료 조정 유도할 계획

### 강달러에 생보사도 '긴장'...환헤지 비용 상승 우려

시사저널이코노미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생보사들의 외화유가증권 92조 8,035억원으로 전월비 3,000억원 가량 증가... 상반기까지 꾸준히 감소세였던 행보와 다른 모습  
글로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 점이 주요 원인... 환헤지 파생상품 존재로 고환율로 인한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다만 통화 관련 파생상품 손실 증가 가능성

### 대형사, 채무보증 증가 지속... 부동산 PF 영향 커

아주경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의 올 2분기 채무보증액 총 34조 4,725억원 기록... 전분기 대비 9.49% 증가한 수준  
한국투자증권이 전분기대비 26.05% 증가한 5조 8,484억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 증권사 채무보증 대부분이 부동산 PF에서 비롯... 자기자본 증가 혹은 채무보증 감축 등 필요

### 일단 스팩부터...증시 부진에 스팩 상장 쏟아진다

뉴스1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총 22개 스팩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오는 7일에는 키움스팩7호, 추석 이후에는 하나금융스팩23호 상장 예정  
현재 심사승인 받고 상장 준비 중인 스팩은 13개, 청구서 접수 스팩은 4개... 계속되는 수요예측 부진에 비교적 상장 절차 간단한 스팩합병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